

가시오가피 함부로 먹으면 毒 간기능 약하고 열 많으면 금물

월드컵기간 동안 우리 축구대표팀의 식탁에 올라 4강신화의 또 다른 힘이 됐다는 한약재 가시오가피.

최근 각종 광고 등에 단골로 등장하면서 거의 만병통치약 수준의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이를 이용한 한방 건강보조식품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방 전문가들은 "사람의 체질에 따라 약이 될수도 있고 독이 될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복용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한다.

업자들의 주장을 어디까지 믿고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활용,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을까.

경희의료원 한방내과 고창남 교수에 따르면 오가피는 인삼처럼 두릅나무과의 식물이며,약으로 쓸 때는 주로 뿌리를 쓴다.

가시오가피는 오가피의 한 종류로 동의보감 등에서 강장작용과 면역력 증강 작용이 인삼이나 녹용보다 우수하다고 설명돼 있다. 또 항암,소염,진정작용이 오가피보다 뛰어나 유해 자극인자에 대해서 저항력을 증강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장 중요한 약효는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 축구선수의 경우 오가피를 복용하게 되면 다리가 튼튼해지며 오래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알려진 것도 이 때문이다.

혈액을 잘 순환하게 해 인체의 병리적인 혈액인 어혈(피부 밑에 피가 맺혀 있는 현상)을 없애주는 효능도 있다. 이밖에 몸이 차고 저릴 때도 효과가 있다. 양기가 부족해 몸이 허해지는 증상에 사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이 같은 약효가 발휘되는 것은 아니다. 간기능과 신기능이

허약하고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소변을 잘 보지 못하거나 허가 지나치게 빨갛고,체온이 높으며 동통(몸이 쭉시고 아픔)이 있는 경우에도 피하는 게 좋다.

고교수는 "가시오가피를 장기복용하면 위나 간에 부담을 줘 장기를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용 전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인삼서 농약 다량검출 BHC 허용기준치 4.5배 초과

국내에 불법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인삼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농약성분이 다량으로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농협인삼검사소가 최근 일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정장선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밀수 형태로 들어온 중국산 인삼에서 벤젠헥사클로리드(BHC)가 허용기준치보다 4.5배나 많이 검출됐다는 것.

농협인삼검사소는 지난 8월28일 서울 청량리 경찰서가 압수한 중국산 밀수 인삼 200g에 대해 잔류농약을 분석한 결과, 벤젠헥사클로리드가 허용기준치인 0.2의 4.5배인 0.895이 검출됐

고 펜토젠(PCNB)도 허용기준인 1.0보다는 낮지만 0.663이 나왔다.

반면 국산 백삼에서는 벤젠헥사클로리드와 펜토젠이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

농협인삼연구소 이용구 박사는 "올 들어 여러 차례 중국산 인삼에 대해 잔류농약을 조사한 결과, 이 두가지 농약성분이 나왔다"며 이는 국산 인삼과 중국산 인삼의 구별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벤젠헥사클로리드와 펜토젠은 이들 성분이 인체에 잔류해 누적될 경우 간·심장 등 신경계통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농약 성분이다.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 개최

2002년도 하반기 수급조절용 한약재로 시호 1백톤, 지황 2백톤이 수입된다.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49차 회의에서 최근 물량 부족현상을 빚고있는 시호와 지황을 각각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국산 시호 가격이 kg당 2만3천5백원 이하로 하락할 경우 전량 구매해주는 조건이다. 통관기한은 시호가 오는 12월31일까지, 지황은 10월31일까지다.

생산자단체 측에서 제안한 국산한약재 구매건은 차기 회의 개최 전에 소비자단체(4개) 및 농협, 약공, 도매협회로 구매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한편 대한한의사협회 보유분 창출 및 백출 미인수량은 해당단체가 오는 11월30일까지 인수 완료하기로 했다.

북, 약초 재배-채취 촉구

북한은 가을철 '약초재배 월간'(9-10월)을 맞아 약초채취와 함께 약초 발면적을 확대하는데 힘쓸 것을 촉구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은 23일 "9-10월 약초재배 월간을 맞아 지금 보건부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약초를 잘 재배하고 보호하며 제 때에 채취하기 위한 사업이 벌어지고 있다"며 특히 그동안 가뭄은 약초를 낭비 없이 채취하는 것이 이번 월간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밝혔다.

중앙TV는 이를 위해 일꾼들이 근로자들에게 약초의 품질과 재배의 중요성, 약초심기와 보호, 채취 등과 관련한 문제들에 관해 상세히 설명해 주고

주인의식을 갖고약초채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방송은 약초채취에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어린 약초들은 캐지 말고 도라지나 작약 등은 잎이 피기 전에 채취하며 산수유 등의 열매는 잘 익은 다음 딸 것을 당부했다.

또 나무 껍데기를 벗길 때는 나무가 죽지 않도록 큰 나무는 나무둘레의 3분의 1,길이는 50cm 정도로 벗기고 작은 나무는 길이 10-20cm 정도로 나무의 중간부근에서 벗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4-5월과 9-10월을 '약초재배 월간'으로 정해 약초재배를 권장하고 있다.

학회 동정

자원식물학회 국제학술회의 계룡산 주변 자원식물 탐사도

한국자원식물학회(회장 조덕현) 제9차 국제학술회의 및 추계 학술발표회가 오는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대전 배재대학교 자연생물학관에서 열린다.

이번 국제학술회에서는 동아시아의 민족 식물의 이용 및 개발을 주제로 동아시아 민족 식물의 자생 현황, 민족 식물로부터 신기능 건강식품 개발 및 항생제의 개발에 관해서 인도 Tamil Nadu대학의 Regupathy 박사 및 중국 연변대학의 김수철 교수 등 6개국 학자 및 실무자들의 강연 특강이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고석찬 박사(제주대학교), 이종렬 조합장(강원남부생약농업협동조합)등 국내 연사의 한국 민족 자생식물의 개발현황 및 방향에 대한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학술발표회 마지막날인 16일에는 계룡산 주변 자원식물을 탐사하게 된다.

한국약용작물학회 가을 학술발표회

한국약용작물학회 2002년 임시총회 및 가을 학술발표회가 10월31일부터 11월 2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제주대학교 농생대 감귤화훼과과학기술센터에서 열린다.

한국약용작물학회와 바이오그린21 특용작물연구단이 주최하고 제주대학교 이열대동물과화학연구소,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학술발표회에서는 제주대 이영재 교수가 "자생식물과 항고혈압 활성 성분 탐색"에 대해,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양영환 과장이 "한라산의 식물상과 식물자원 개발전망"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계획이다.

둘째날인 11월1일은 바이오그린 21 특용작물연구단의 학술발표회가 이어질 예정이며 마지막 날인 11월2일에는 "제주특산 약용식물 산업체 견학" 일정도 잡혀있다.

사향 5천마리분 불법 수입 기도 적발

사향 5천여마리분을 불법 수입하려 한 회사가 의약품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 서류를 위조해 몽골산 사향 100kg(시가 20억원 상당)을 불법 수입하려 한 서울 동대문구 소재 M사를 적발,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최근 밝혔다.

사향은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대상품목으로 국가간 상업거래가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M사는 사향 수입 서류에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수출국 정부 발행 CITES증명서를 위조, 지난 8월초 수입허가 신청을 했다가 식약청의 증명서 진위확인 과정에서 위조 사실이 드러났다.

식약청은 "이 업체가 수입 하려던 사향은 작년 전체 수입 물량(30kg)의 3배가 넘으며 보통 사향노루 1마리에서 20~30g의 사향이 채취된다고 보면 이는 5천마리 이상"이라고 말했다.

사향은 사향노루 수컷의

배와 배꼽 뒤쪽 향낭 속에 있는 사향선(腺)을 건조시킨 것으로, 옛부터 흥분 진경제나 기절했을 때 정신이 들게 하는 생약으로 사용됐으며, 국내에서는 우황창심원 원료로 쓰이고 있다.

허위광고 헛개나무 추출물 제조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일간지나 인터넷 등을 통해 헛개나무 추출물이 특정질병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한 충남 공주 H사 등 14개 식품제조판매업체를 적발, 행정처분토록 조치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헛개나무 추출 제품이 간암이나 간경화 등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구자 나무'로도 불리는 헛개나무는 갈매나무과 식물로 잎모양은 뽕나무와 비슷하고 갈색이나 검은색의 열매에 닭발 모양의 열매자루를 갖고 있는 게 특징이다.